

성안드레아 김대건과  
성바오로 정하상과 동료  
순교자 대축일 경축

제1독서 : 지예 3, 1-9  
제2독서 : 로마 8, 31b-39  
복 음 : 마태 9, 23-26

# 순정이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 것이다.”  
(루가 9, 24)

## 강론

## 소리

### 순교는 증거

박종탁 신부 / 임실 천주교회

“그 사람들은 걸음을 옮겨 소돔 쪽으로 갔다. 아브라함이 다가 서서 물었다. “당신께서는 죄없는 사람을 죄인과 함께 기어이 쓸어 버리시렵니까? 저 도시 안에 죄없는 사람이 오십 명이 있다면 그래도 그 곳을 쓸어 버리시렵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주여, 노여워 마십시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열 사람밖에 안 되어도 되겠습니까?” 아훼께서 대답하였다. “그 열 사람을 보아서라도 멸하지 않겠다.””

“의로운 시민, 가족 오염”-지난 8월10일 성 폭행범을 붙잡으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최성규(32)씨의 빈소가 마련된 ○○병원에서 부인 조미숙(30)씨가 오염하고 있다(한겨레신문 8월13일).

“뺨소니범 쫓던 시민 경찰 오인 총격에 사망”-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는 고교생을 뒤쫓던 시민 신부호(42)씨를 범인으로 잘못 알고 실탄을 쏘고 시민과 길 가던 사람 2명이 크게 다쳤다(한겨레신문 9월6일).

9월은 순교자 성월이고 지난 20일은 성안드레아 김대건과 성바오로 정하상과 동료 순교자 대축일이다.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증거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을 기리고 본받는 시기이다.

어떻게 본받아야 할 것인가? 인간이 마땅히 가야 할 도리를 따르다 희생된 용감한 시민들의 삶이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고 그 길을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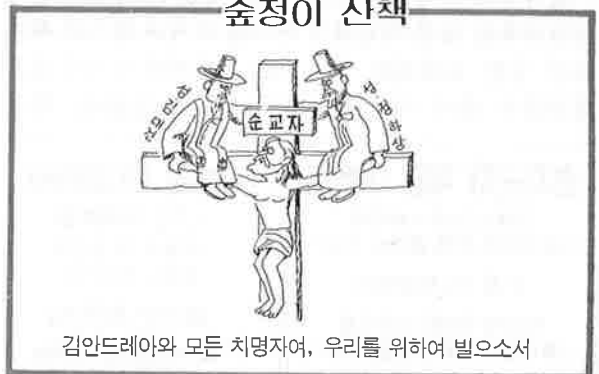
그리고 순교 150주년을 맞는 성안드레아 김대건 신부님의 “나는 이제 천주님을 위해 죽으니, 나를 위하여 끝없는 생명이 시작되려 합니다.”라는 말씀을 되새겨 보면서 하느님의 자녀답게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자.

### 추석 대명절

추석은 우리 나라와 중국에만 있는 1년 중 가장 큰 명절이다. 수확의 즐거움을 조상과 함께 나누고 그 은덕에 감사를 드리는 날이다. 햇곡식으로 송편을 빚는 등 음식을 만들고 흠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처럼 모여 앉아 밀렸던 정을 나누고 성묘를 한다. 오랜 관습으로 지켜온 추석의 모습이다. 시장은 제수용품 준비하는 인파로 붐비고 고향을 떠나 있다가도 추석이면 자동차에 시달리고 뺨길 수백 리 머나먼 거리를 마다않고 고향을 찾는다. 그런데 올해 추석은 웬지 모르게 쓸쓸하게 느껴진다. 벼농사도 잘됐고 오폭백과가 풍성하다. 연휴도 4일이나 계속돼 예년보다 하루가 많은데도 즐겁지가 않다. 열차와 고속 버스가 이미 동이 난 것으로 미루어 귀성인파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수용품 가게를 찾는 발길이 뜸하다. 장바구니 물가가 무겁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각 기업들이 내년 임금 총액규모를 올해 수준으로 묶고 고임금 구조개선을 위한 명예 퇴직제도를 도입 대대적인 감원선봉이 예상돼 서민들의 가계가 벌써부터 움추러 든 탓이리라. 이런 가운데 유명 관광지 호텔과 여관은 예약으로 만원을 이뤘고 해외 나들이를 떠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한다. 추석을 가을 연휴로 여기는 인사들이다.☐

### 순정이 산책



김안드레아와 모든 치명자여, 우리를 위하여 빌으소서

2000년 대희년

# 무쇠를 갈아 바늘을 만들듯 닦은 신앙

김진소 신부 / 호남교회사 연구소

“어제까지 외교인이던 사람들, 아직 성사라고는 성세성사밖에 받지 못했고, 신부도 없고 미사성제도 없이 우상숭배자들 가운데 살며, 종교교육이라고는 거의 받은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교적 인종(忍從)과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초자연적인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하느님의 주신 은총의 효력으로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이 말은 역사상 처음으로 1874년 파리에서 출판된 「한국천주교회사」의 한 대목이다. 이 책을 쓴 파리의 방전교회회원인 달레 신부는 순교자들이 남긴 「옥중편지」를 읽고 정리하며 그 내용이 하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깊은 영성을 담고 있어서 감격한 나머지 성령의 신기한 행적으로 여기며 그렇게 적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을 모르고서 하는 말이다. 한국교회가 창설되자 학문이 높은 지식인 교우들은 성서의 말씀과 교리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무쇠를 갈아 바늘을 만들듯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 분들은 중국에서 들여 온 한문 천주교 서적들을 연구하는데 말을 타고 가거나 멀미를 하며 배를 타고 있건, 언제나 묵상을 그치지 않았다. 신앙의 진리를 올바르게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성서와 교리의 조그마한 문제일망정 그 이치를 터득하지 못하면 병이 들어서건 배가 고프건 괴로움을 몰랐고, 편히 잠을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음식의 맛을 잃을 정도였다. 얼마나 씹고 또 씹어 완전하게 소화했는지 누가 별별 도리를 물어 도 마치 호주머니 속에 든 물건을 꺼내 주듯 막힘이 없을 정도였다.

한국인의 교육열이 옛날이라고 달랐던가. 조상들의 신앙교육열 또한 대단해서 어디를 가거나 앉기만 하면 교리 강론 보따리를 펼치는데 말씀씨마저 구수하고 청산유수 갈아 사람들이 곁을 떠나지 않았다. 만약

신앙의 지식이 짧거나 무지몽매한 자녀들을 만나면 목이 아프고 혀가 굳어도 싫증을 내는 빛 없이 괴로운 줄을 모르며 전심전력을 다해 깨우쳐 주었다. 그래서 아무리 어리석고 둔한 사람이라도 신앙의 도리를 깨치지 못한 사람이 없었다.

또한 한문을 모르는 자녀나 무식한 사람들이 책을 펼치기만 하면 어느 한군데도 의심이 들거나 모호한데 없이 그림책을 보듯 훤히 알 수 있는 책을 지어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기도서와 교리서 등 신심에 필요한 것이면 한글로 엮어 깊은 산골에까지 보급했다. 어디 그 뿐인가. 신도 대중에 깊은 신심을 지니고 일상생활을 신심으로 숨쉬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노래를 지어 보급했다. 남녀노소, 신분의 높고 낮음, 학식이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공유하며 부를 수 있는 것으로 노래만한 것이 어디 또 있겠는가. 그래서 교리, 기도, 복음, 전례 등 신도들이 깊이 간직하며 살아야 할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노랫말을 만들었다. 그 노래들을 우리 조상들은 「천당노래」, 「천당강론」이라 했고, 요새는 「천주가사」라고 부른다.

할머니와 어머니는 어린 아이들이 대여섯살이 되면 무릎에 앉히고 「천당노래」를 가르쳤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삶의 가치가 무엇이며, 행복이 어디에 있으며, 사람이 가야 할 최종 목적이 어디인가를 노래하며 살게 했다. 「천당노래」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어쩔 수 없이 체념하는 마음으로 고통하며 지낸 것이 아니라 불행하고 고통스런 세월을 보람과 행복을 예비하는 시간으로 이끌어 준 지혜였다. 이 노래를 부르며 굶주림과 헐벗음, 그리고 모진 갈등을, 문만 열면 기다리고 있는 죽음을 밀쳐 냈다.

### 연지곤지 웨딩 이벤트

드레스 35만~40만원  
 <신부화장, 부케, 펌백웃 무료>  
 유순 이(가타리나)  
 전통성당 시내버스 승강장 앞  
 ☎ (주)82-2347 (야)225-5755

### 한양 내과의원

(구) 박애의원  
 자동차 적성검사  
 부설: 물리치료  
 김석주(토마스)  
 ☎ (0658)45-3769

### 화랑다농 직설차

지리산 산수 좋은 곳에서 자생하는 야생잎을 따서 손수 만든 전통 녹차입니다. 자연산 향기와 맛을 자랑하는 최고의 품질입니다.  
 <신속하게 우편으로 우송해 드립니다>  
 권순옥(젼마)  
 경남 하동군 화계면 용장리  
 ☎ (0595)83-6624

### 성심 목공업사

장의자, 성구, 진열장  
 각종가구, 실내장식  
 서옥봉(스테파노)  
 공장-전주시 산정동 동신철강 옆  
 ☎ 242-1747

**잠 간**

# 선조를 기억하는 차례(茶禮) 예식

오는 9월 27일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이날 각 가정에서는 차례를 지내게 되므로 가톨릭적인 차례 예식을 소개합니다.

- ① 성호경
- ② 성가: 가톨릭 성가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부른다.  
(예를 들어 28장, 59장, 423장, 480장, 50장 등)
- ③ 독서: 아래 제시하는 성서 구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봉독한다.
  - ㉠ 요한14,1-14    ㉡ 요한15,1-12    ㉢ 요한17,1-26
  - ㉣ 루가2,41-52    ㉤ 마태5,1-12    ㉥ 로마9,1-18
- ④ 가장(家長)의 말씀
  - ㉦ 선조들을 소개하고 가훈, 가풍, 선조의 말씀을 전해 줌.
  - ㉧ 오늘의 집안 현실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이야기함.
  - ㉨ 하나님의 말씀과 선조의 유훈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감에 대해 이야기 하고 서로의 대화를 통하여 사랑과 일치를 다짐.
- ⑤ 큰절: 서열순으로 영전에 큰 절을 드린다(남녀 가리지 말고)
- ⑥ 사도신경, 부모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부부의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기도서를 참조)-연도-등을 바친다.
- ⑦ 참석자는 모두 신자들의 기도를 바친다.(은혜청원)
- ⑧ 성가: 가톨릭 성가 중에서 하나를 택한다.(445장,77장,481장 등)
- ⑨ 주의기도: 다 함께 바친다.
- ⑩ 식사: 차례 음식을 나눈다. 음복(飮福)-사랑과 일치의 식사
- ⑪ 성호경

## 교구 및 제 단체 소식

1. 교구청 휴무: 9월26일~28일 추석연휴 관계로
2. 추석 소리개재 합동 위령미사: 9월27일(금) 오전11시, 10시30분-합동 연도
3. 사제 평의회: 9월24일(화) 오전10시, 교구청
4. 은혜의 밤 철야기도회: 9월27일(금) 밤11시, 전동성당
5. 치명자산 성당 금요미사: 9월28일(토) 오전10시30분(추석관계로)
6. 전주 성심여자 중·고등학교 개교 50주년: 기념축제-10월2일 오후3시, 7시30분, 학생회관, 기념식-10월3일 오전10시, 전주 성심여자중·고등학교

※ 축 영명! : 27일(성빈첸시오) 이병호 주교님, 김진철 신부님  
 29일(성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안용기, 김종길, 박종상, 범영배, 박관길, 정규봉, 이사정 신부님

### 요심이 (1204) 김병오



초대합니다  
**고경훈(프란치스코) 신부님**  
**축 회갑**  
 일시: 1996년 10월 3일(목)  
 장소: 황동 천주교회  
 제1부: 축하미사-오전11시  
 제2부: 축하식-오전11시40분  
 제3부: 축하연-12시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성 소 모 임**  
 초대 교회 공동체의 정신으로 수도 생활을 하고자 하는 고졸이상의 미혼 여성  
 · 일시: 9월22일(일) 오후2시  
 · 장소: 삼랑진 본원(0527)52-4241  
 · 준비물: 신구약 성서

**진도 패션 전주점**  
 모피, 무스팡, 남성복 전문매장  
 · 9월20일까지 세일(50%~20%)  
 · 연중무휴  
 손한성(바오로)·정정민(가티리나)  
 전주시 교사동(구)역전오거리 천보당  
 ☎ 231-2005~7

**제 일 공 예 사**  
 각종 식상, 찻상, 교자상, 목기제작  
 (칠순, 회갑, 결혼답례품 주문생산)  
 이 윤 백(바오로)  
 남원시 어현동 목공예단지내  
 ☎ (0671)33-7873

**임혜연 웨딩샵**  
 드레스, 예복 대여전문점  
 메이크업, 신부화장  
 임 혜 연(엘리사벳)  
 전봉백화점 앞 에스프리 2층  
 ☎ 85-5041

**015 팔달통신**  
 - 전북이동통신 팔달로 대리점 -  
 휴대폰, 카폰, 호출기  
 오 현 중(스테파노)  
 유 미 숙(마 르 타)  
 전주 오거리 국민은행 옆  
 ☎ 84-0015~6

#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주임신부 82-9663 사 부 실 82-9661 주임신부 범 영 배  
F A X 82-9664 수 너 원 82-9662 사목회장 김 동 주

- ◎ 축! 영명: 신부님의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맑은 기도바람.
- ※ 축하식 및 나눔의 잔치: 오늘 공식미사 후
- 1. 사목회 사회복지분과 부장 임명: 서용분(요한)→양신순(크리스티나) 수고하시겠습니다.
- 2. 남전주지구 초등부 체육대회: 오늘, 성심여교 운동장
- 3. 추석활동 위령미사 예불접수: 26일까지 사부실
- ※ 추석활동 위령미사 시간: 27일(금) 전 6시
- 4. 전례봉사자모집: 대상-전례봉사에 관심있는 분  
신청-사부실. 각 구역별 남녀 2명이상
- 5. 저녁미사시간 변경: 24일(화)부터 7시30분에서 7시로 변경
- 6. 본당의 날(6일)행사: 미사-전 10시30분. 치명자산(9시 미사 없음) 준비물-미사도구, 도시락(구역별, 단체별로 준비) 장기자랑-구역별로 준비바람.
- 7. 모임: ①천사의 모후Cu., 성우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빈첸시오회-25일 전 11시
- 8. 금주 전례: 새벽-인후1구역, 저녁-인후2구역  
공식 안내-성우회, 해설-노광용. 독서-①환기성 ②황의숙  
신자들의 기도-이방기, 조분남, 봉헌-진도열 부부
- 9. 차주 전례: 새벽-중노1구역, 저녁-중노2구역  
공식 안내-사목회, 해설-최광식. 독서-①순만술 ②신순이  
신자들의 기도-노관석, 강희자, 봉헌-박태복 부부
- 10. 금주 청소: 중노 2,3반 12. 차주 청소: 중노4,5반

□ 지난주 봉헌금: 1,124,210원 □ 교무금: 961,000원

**\*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 부 실 86-3455 주임신부 정 승 현  
수 너 원 86-3454 사목회장 박 성 기

- 1. 성지순례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 2. 추석 활동 위령미사: 27일(금) 전 6시, 10시30분  
선영들을 위해 정성껏 봉헌합니다-25일까지
- 3. 남전주지구 초등부 체육대회: 22일(오늘), 성심학교
- 4. 올드레이에서 영광같이 판매합니다: 22일(오늘)
- 5. 성서 교실: 24일(화) 전 10시, 후 8시-출애굽기1~10장
- 6. 유아세례: 28일(토) 오후 7시
- 7. 북한 수제민을 위한 성금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치의 모후-7만원, 허정식-2만원, 원성희, 양남수-1만원
- 8. 금주 전례: 해설-유복규, 독서-구분장 부부  
봉헌-환용석 가족
- 9. 추석 전례: 해설-오교성
- 10. 차주 전례: 해설-최육남, 독서-안철조 부부  
봉헌-이태영 가족
- 11. 성당 청소: 28일(토) 순결하신 정너Pr., 증기자의 모후Pr.

□ 지난주 봉헌금: 521,450원 □ 교무금: 352,000원

**\* 상 관** 주임신부 85-6654 사 부 실 85-6652 주임신부 김 범 영  
F A X 85-6652 수 너 원 85-6653 사목회장 강 덕 용

- ◎ 9월은 순교자의 성월: 순교정신을 본받아 신앙을 증거합니다.
- ◎ 정성된 기도와 봉헌(교무금, 주일헌금)은 신자의 의무입니다.
- ◎ 본당발전을 위한 2차헌금: 오늘 있습니다.
- 1. 금주 모임: 성모회, 자모회-공식미사 후
- 2. 추석 활동위령미사: 27일(금) 전 10시
- 3. 성가에 관심 있으신 분 환영합니다.  
-수녀님, 전례부장에게 신청바람.
- 4. 성당청소: 금주-모든 성인의 모후Pr.  
차주-성실하신 동정너Pr.
- 5. 금주 전례: 해설-김영신, 독서-①남현준 ②이순자  
봉헌-김완석 가정
- 6. 차주 전례: 해설-이훈봉, 독서-①한동욱 ②김갑자  
봉헌-안복성 가정
- 7. 차주 전례: 해설-최원규, 독서-①강춘수 ②이석남  
봉헌-김영신 가정

□ 지난주 봉헌금: 352,560원 □ 교무금: 675,000원

**\* 서화동** 주임신부 84-8307 사 부 실 86-4929 주임신부 이 중 원  
수 너 원 84-2276 사목회장 민 범 부

- ◎ 추석 불우이웃 돕기에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1. 선교세미나: ①오늘 후 2시, 본당  
②제복-당신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③강사-김영대(루도비코) 전 광주 세나투스 단장  
\* 레지오단원, 신심단체장, 구역장, 그의 모든 신  
자들은 필히 참석바람.
- 2. 추석 활동 위령미사 안내: 27일(금) 전 6시, 전 10시  
\* 미사에몰은 26일(목)까지 사부실에 접수바람.
- 3. 축! 촛배: 오늘 12시  
신랑-김두환(라파엘), 신부-채윤선(라파엘라)
- 4. 초등부 주일학교 어린이 한마당:  
①일시-10월3일(목) 전 9시30분~후 5시 ②장소-윤희관
- 5. 차주 모임: 반장회-29일(일) 공식미사 후, 유아방
- 6. 금주 전례: 공식미사 해설-남정숙(제노베파)  
독서-①전경후(사베리오) ②김성희(울리안나)
- 7. 차주 전례: 공식미사 해설-유용산(바오로)
- 8. 청소 안내: ①금주-상아탑Pr. ②차주-평화의 모후Pr.

□ 지난주 봉헌금: 1,152,600원 □ 교무금: 1,032,000원

**\* 전 동** 주임신부 81-0098 사 부 실 84-3222 주임신부 김 봉 희  
보좌신부 82-7245 수 너 원 82-9234 보좌신부 송 영 진  
F A X 82-6232 유 처 원 84-8347 사목회장 주 환

- ◎ 축! 영세: 22일 공식미사 중  
\* 하나님의 자녀되심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1. 금주 모임: 성 마리아 꼬미시옹-후 2시
- 2. 남전주지구 초등부 체육대회 관계로 오늘 3시 미사는 없습니다.
- 3. 추석 활동 위령미사: 27일(금) 전 5시30분, 9시미사
- 4. 자랑 축복식: 29일 공식미사 후
- 5. 교리휴강: 금일 영세식 관계로 9월 마지막 주는 교리를 휴강함.
- 6. 예비자 교리 개강: 10월 6일(일) 공식미사 후  
\* 예비자 교리 안내  
내학생, 청년회-화요일 후 8시  
노인반-수요일 전 10시  
작장인, 성인반-목요일 후 8시  
중·고생반-토요일 후 4시  
일반인, 남녀-일요일 전 9시
- 7. 순교자 현양을 위한 가든음악회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성지개발 헌금 정성껏 봉헌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2,141,770원 □ 교무금: 2,479,000원

**\* 평화동** 주임신부 232-5001 수 너 원 232-5004 주임신부 이 삼 설  
F A X 232-5003 사 부 실 232-5005 사목회장 강 성 근

- ◎ 추석 활동 위령미사: 접수 25일까지  
미사시간-전 5시30분, 10시30분
- 1. 오늘 모임: ①올드레이, 풍송회-공식미사 후  
②청년회-저녁미사 후
- 2. 주간 모임: ①봉성제2반(구역쪽)-24일 9시부터  
②빈첸시오회-24일 전 10시  
③M.E모임-24일 저녁미사 후
- 3. 전신자 성지순례: 정양 중부팀, 10월13일(주일)  
신청-10월6일까지 전신자 신청바람.
- 4. 감사드립니다.  
①성전신축봉헌금 신입구좌(1구좌: 100만원): 한옥순2, 익명1, 조길자1, 최영규1, 이인익1, 김명호1, 익명1, 오규1, 이기태0.  
5. 이육자0.5, 임위순0.5, 신영일0.5, 성욱이0.5, 임금순0.2.  
소계: 11.7구좌, 총계: 371.8
- ②성전신축봉헌금 납부: 김복진100만, 임호영100만, 박순규100만, 최병남50만, 한옥순40만, 익명30만, 이기권20만, 신영일10만, 이점이10만, 박태선10만, 최분자10만, 오규10만, 이복순10만, 임금순5만, 이완남3만. 소계: 5,080,000원, 총계: 56,987,020원
- 5. 성전 신축금 신입에 모두 참여합니다.
- 6. 겨울 보일러 난방: 주유권을 구입하여 사용합니다.
- 7. 교무금 납부에 정성을 다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1,775,050원 □ 교무금: 1,920,000원